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94.59	↓ 코스닥	788.60
	(-24.50)		(-20.62)
↓ 금리 (미국 9년)	3.703	↑ 환율	1324.20
	(-0.155)		(+2.00)

韓美日 협력 급물살... ‘시진핑 체제’ 中 경제고립 위기



한일 경제계 인사 협력 논의
16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尹, 10대 그룹 총수들과 동행
‘韓日동맹’ 美, 中 압박 무게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시진핑에 다시 한 번 주석을 맡기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고립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한국이 함께 하고 있어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 경제계 핵심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일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이 행사는 한일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열렸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기회로 경제적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갈등 요인이었던 ‘강제 징용’ 관련해 합의에 성공한 상황, 2019년 수출 규제 등 경제적 분쟁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 뜻을 나타냈다. ‘강제 징용’ 문제 합의 직후 환영 인사를 발표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미국 기업 처음으로 배상금 기부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한일 협의로 미국의 중국 압박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오랜만에 힘을 합치게 되면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미국을 대신해 일본 기업들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콘이 개발한 DUV와 캐논이 개발한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IL) 등 장비를 활용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낙점했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2년간 중단된 서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을 고려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100+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엄타정’, ‘엄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업 미래에셋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흑자 굳히기’ 나선 쿠팡, 日 사업 접고 대만 투자 집중

도쿄 배송 서비스 21일 종료
엔데믹 여파 성장 둔화 영향
수익성 높은 크로스보더 강화

쿠팡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질서 정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고, 리테일 테크 영역과 크로스보더(직구·역직구) 역량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쿠팡이 도쿄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식품 및 생활용품 배송 서비스를 이달 21일 종료한다고 보도했다. 쿠팡재팬은 니혼게이자이에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운용한 결과,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에 도입한 무인 지게차의 모습. 직원이 누르는 버튼 한 번으로 알아서 대용량 제품을 옮겨줘 직원의 안전도 보장한다. /쿠팡

쿠팡은 지난해 “흑자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수익성 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후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는 등 수익성 개선 사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일본 내 쿠팡 사업 철수 또한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지난 2021년 6월 일본 도쿄 일부지역에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를 결합한 쿼커머스 형태로 시범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쿼

커머스 산업군 전체의 총매출은 2019년 11억1000만달러에서 2020년 17억1000만 달러, 2021년 23억6000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본격적인 엔데믹(풍토화)를 맞은 지난해 26억6000만 달러로 시장 증가세가 둔화했다.

스태티스타는 “2023년 매출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1%까지 오르겠지만 이후 증가세는 계속 둔화돼 2027년에는 11.4%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익성이 좋은 대만 시장에 대한 투자와 미래유통 산업의 육성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쿠팡이 지출한 물류 기술 투자 규모는 1조2500억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테일 테크를 육성하면 솔루션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자 물류 캐파(CAPA)를 개선해 더욱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은 물류 외에도 적용 가능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아시아권 최대 규모 물류센터인 대구FC를 공개하고, 무인운반로봇(AGV), 소팅봇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3200억원 수준으로, 이후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 될 예정이다. 올해 중 추가로 2개의 대형 물류센터 열 예정이다.

크로스보더(직구·역직구) 커머스도 계속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대만에 역직구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앞서 국내 로켓직구 서비스에도 중국과 홍콩 등을 추가하며 중국 내 크로스보더 커머스 역량을 키우고 있다. 매년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며 해외 고객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동번역, 배송역량 성장으로 간편해진 직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투자는 초기 매출 비용이 커도 일정 규모에 오르면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김서현기자 seo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민의힘, ‘측근 사망’ 이재명에 “정치 이전 인간 돼야” /사진 뉴시스
▲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퇴... 참모들에 “건승하시라”

▲ 태영호 “JM’S 민주”... 與, ‘前비서실장 사망’ 이재명 맹공세
▲ 선거제 개편 시한 한달 앞으로... 여야, 이번주 당내 의견 수렴



▲ 민주 “日 총리 초청장 한장에 국민자존심 팔아”...尹강제징용해법 직격 /사진 뉴시스
▲ 한미, 내일부터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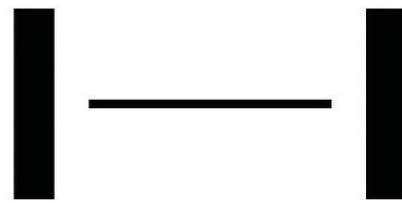
카카오 ‘SM 인수전’ 승리… 하이브, 플랫폼 협력 하기로

하이브 “공개매수 등 부정적 영향
시장과열 우려, SM인수절차 중단”
15.78% 보유주식 처리방안은 합구

카카오 “하이브의 결정 존중”
26일 예정된 공개매수 진행키로
매수 성공엔 지분 39.91% 보유



kakao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하이브(HYBE)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카카오는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와 합의에 성공해 SM엔터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브, SM 인수 중단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SM의 가치와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비용까지 고려한 적정 인수가격 범위를 설정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추가 공개매수로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주식시장마저 과열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SM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할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인수 절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브측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카카오와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고, 양사는 대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며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양사의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하이브는 그동안 SM 인수와 관련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이브가 보유한 SM엔터 지분 약 15.78%의 구체적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카카오가 하이브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은 물론 하이브가 SM엔터의 2대주주로 남은 후 추후 카카오엔터로 합병 및 상장 과정에서 지분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이번에 극적 합의에 이른 만큼 오는 3월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카카오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 진행

카카오는 하이브의 결정을 존중하며,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

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배재현 대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 SM엔터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와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지분율은 4.91%로 지분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율을 39.91%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카카오는 SM엔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

덤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M엔터의 글로벌 IP와 제작 시스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IT 기술과 IP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배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IP 경쟁력과 IT 기술력 뿐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하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산업 내 파트너들과 공정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차기 수출 주력 산업으로 규모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가 카카오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반발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맥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맥주·탁주가격 인상 제동… 주세법 손본다

기재부,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

맥주와 막걸리값이 들쭉이자 정부가 또 다시 술에 매기는 세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와 연동돼 산정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술인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가 인상됐고, 주류 업계에서 덩달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제동을 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에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주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다. 그런데, 정부는 4년 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맥주, 탁주 주류 업

체들은 수입 맥주보다도 세금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가 이를 반영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물가가 5%대로 치솟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주세로 적용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는 1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주세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자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였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주류 가격이 들쭉이며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세법 개정 시 담배세처럼 종량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1l 당 세금을 매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궤련 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물가 인상 여론에 밀려 정부가 다시 주류세 비율을 고정시키는 안을 검토하자 물가를 빌미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값마저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상반기 세계 첫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산업부, 관련고시 행정예고

암모니아 연료의 무탄소 발전원

2025년 발전분 올 2회 입찰 진행

관련법령 마련 후 내년 초 개설키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중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발전 기술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수소발전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2023년~2025년까지 3개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수소발전, 특히 연료전지를 보급해 왔으나, 수소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을 경쟁해 보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입찰시장 개설연도별 입찰물량〉

입찰시장 개설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상업운전 개시년도	개설물량 (GWh)	상업운전 개시년도	개설물량 (GWh)	상업운전 개시년도	개설물량 (GWh)
일반수소 발전시장	2025년	1,300(주)	2026년	1,300(주)	2027년	1,300(주)
청정수소 발전시장	-	-	2027년	3,500	2028년	3,000

주) 설비용량 기준 200MW에 해당.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앞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 작년 6월 수소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1월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을 현행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력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2025년~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300GWh(기가와트시)로 정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인 2024년 초 처음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환경성을 고려해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추출수소나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청정

수소 시장,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키로 했다.

다만,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대신,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추진한다. 청정수소 발전량은 2028년부터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전망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10~20년 중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된다.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를 약 830만톤 감축하고,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통해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美 빅스텝, 제동걸릴 수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못버터
파산한 은행 중 역대 두번째 규모
IT·바이오스타트업, 주거래 고객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SVB 붕괴사태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16번째 규모 은행인 SVB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해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총예금은 1754억 달러다.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어렵지만…시장 변동성 키울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SVB 붕괴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낙관적 시각은 실리콘밸리은행이 일반은행들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큰 타격을 받은 IT와 바이오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주거래 고객이다 보니, 그 충격이 훨씬 컸다는 해석이다.

12일 모건스탠리는 SVB의 총자산은 JPMorgan의 10%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은행위기를 촉발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고객 노트에서 “SVB가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왼쪽)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F4회의에 ‘SVB 파산’ 안건 올라
“실물경제 등 영향 배제할 수 없어
관계기관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美 연준, ‘빅스텝’ 시사 했지만
“SVB파산, 급격한 금리인상 탓”
일부 지적에 0.25% 인상 가능성도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파산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이 매주 일요일 참석하는 일명 ‘F4 회의’에 SVB 파산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들은 간담회 후 “이번 미국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 밸리 은행 간판 모습. /뉴시스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직은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 통화긴축 유지 지배적

특히 이번 SVB 붕괴사태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현재 SVB 보다 규모가 큰 은행들로 문제가 번지지 않는 한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날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강도 긴축은 단행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VB파산도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린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연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경우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형 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연준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0.25%p만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질어진 불확실성에 지난달 금리 동결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국내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진 데 이어 경상수지가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한미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커질수도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외국인 자금이탈 가속화 되나… “증시 변동성에 대비를”

한국거래소, 지난주 코스피 1.54% ↓
외국인·기관 순매도에 지수 끌어내려

다음주 美 주요 경제지표 발표 예정에
경계심으로 인한 변동성 가능성 주목

주식시장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가 들이닥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달 하순부터 순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자금의 국내시장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2432.07) 대비 37.48포인트(1.54%) 내린 2394.59에 마감했다. 특히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42억원, 284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개인투자자만이 홀로 8123억원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SVB 파산등의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이번주에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핵심자금원인 SVB가 파산을 선언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면서 SVB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 은행주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KBW 나스닥 뱅크 인덱스’는 일주일간 15% 넘게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SVB 사태가 개별기업의 이슈일뿐 금융업종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VB 파이낸셜 사태가 여타 대형 금융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해 중소형 은행들 중 일부는 부담이나 영향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음주 중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면서 전문가들은 경계심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는 14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15일 2월 생산자물가(PPI)·소매판매, 17일 2월 산업생산 등이 연이어 발표된다.

또 이번 SVB 사태가 미국의 과잉긴축 여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시장의 긴장도는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으로, 그 수치에 따라 금리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시장은 좋은 지표는 나쁘게(Good is Bad), 나쁜 지표는 좋게(Bad is Good)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준 정책과 미국 경기사이클 전망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2월 고용 지표 발표 후 물가 지표가 대기하고 있어 현재는 하방재료의 영향력이 큰 구간으로 판단한다”라며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기술적 부담도 높은 상황으로 높은 변동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석 기자 ysl@

韓 경제단체·기업총수 訪日 유력… 반도체 등 협력확대 전망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 예정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등 거론
게이단렌 협력 전경련 역할 기대

한일 경제계가 오랜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협력 방안에 기대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모처럼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 일정에 참가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한일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열렸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경제 6단체 수장 참석이 유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을 비롯한 양국 단체 소속 회장단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와 함께 한국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특히 전경련 역할에 기대가 크다. 최근 일본 강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미래 청년 기금’을 일본 경단련(게이단렌)과 함께 조성하는 임무를 맡은 데다가, 김병준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공약했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설립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6개 단체가 낸 강제 징용 문제

합의 환영 성명에서도 모처럼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전경련은 게이단렌과 함께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주최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를 검토하는 등 전경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경제 단체 중에서는 일본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

는 과정에서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재계 회동에서는 민간 단체 총수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아울러 한일경제협회장을 9년째 이어오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 재계 인사들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원론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협력 구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급한 협력 분야로는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가 꼽힌다. 미국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기술 동맹을 본격화하는 상황, 대한민국만 홀로 남겨질 위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경제계가 화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에도 실제 협력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강제 징용 문제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 회복은 당장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보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소외됐던 한국 산업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尹 “韓日 경제·안보 교류 절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미래 위한 결단”

대통령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공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 실천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특히,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공개했다.

7일 진행된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다음날이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

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방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정책적 뒷받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새겨진 명패를 영상 전면내세우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리창 총리 선출… ‘시진핑 수행 vs 경제 사령탑’ 역할론 엇갈려

● 차이나 뉴스&리포트

시 주석 집권기간 총리역할 크게 약화
핵심측근… 일부 재량권 허용 예측도

시진핑 3기가 ‘시진핑-리창 체제’로 막을 올렸다.

앞으로 관건은 신임 리창 총리의 역할이다. 그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복심을 읽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중국 경제를 살릴 경제사령탑으로 제 역할을 해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유효표 2947표 가운데 찬성 293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시 주석은 바로 리창을 총리로 임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신임 리창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뉴스

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낸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이다. 이후 저장성 성장과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인 상하이 당서기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특히 상하이 당서기 시절 테슬라 공장을 유치했으며,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창반(과학창업판)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유라시아그룹 에이바션 중국 및 동북아시아 담당자는 “리 총리의 가장 큰 도전은 올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금융 리스크는 방어하면서 수요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래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을 이끄는 ‘투톱’이었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총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약화됐다.

반면 시 주석이 신뢰를 바탕으로 오히려 일부 재량권을 신임 총리에게 허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리 총리는 전인대 폐막일인 13일 총리로서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韓 균형외교에도 中 폐쇄조치 ‘적대적’

>> 1면 ‘韓美日 협력 금물살…’서 계속

중국 역사상 첫 시진핑의 3연임에도 빛이 바라는 분위기다. 시진핑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를 통해 만장일치로 주석에 선출, 2028년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총리 역시 최측근인 리창이 차지하며 종신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안팎에서는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해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성장률 회복도 어려운 분위기다. 코로나19와 미국 무역 제재로 경제성장률이 3% 대에 그쳤지만, 올해에도 그렇다할 변화는 없다. 지난해 말 ‘리오프닝’ 속에서도 스마트폰 등 현지 시장은 울어들어서도 여전히 침체일로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폐쇄적인 외교를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대응을 이어감은 물론, 최근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대거 추가하면서도 한국을 뺐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 한일 관계가 회복하면서 중국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외신들도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중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을 점치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이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집권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이념화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시진핑은 최근 경제 위기를 미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내부 결속을 꾀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1988년 존재감을 알린 대한민국

2002년 저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2030 부산 엑스포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의 힘은 더 위대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SK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내외부 악재에 맥 못추는 민주당… ‘쌍특검’ 돌파구 모색

이 대표 관련 인물 잇따라 극단 선택
여당, 비명계 집중포화… 사퇴 촉구
지도부, 정의당 공조 등 투쟁 방침

입지가 흔들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 실장 전 모씨의 죽음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표현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냐”라며 전 모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렸으나,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4명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 모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민주당은 원팀입니다 게시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의 표현을 남기면서 이 대표에게 부담을 안겼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전 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밖에서 6시간 이상 대기한 끝에 짧게 조문하고 나왔다.

여당은 이를 빌미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심자포화를 퍼부었으며, 민주당 내부 (비)이재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

하면 ‘패륜정치’ 아니겠냐”라며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말한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십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비명계는 자체 회동을 통해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SNS에 전 모씨의 부고를 두고 “참 좋은 분이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쌍특검’ 추진으로 3월 임시 국회에 임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총 11명 중 9명을 비명계 의원으로 배치하면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공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비이재명계는 당직의 대부분이 이재명계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에 3~5선 중진들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당내 분열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정의당과 공조를 벌이는 등 대정부투쟁에도 나서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기현 지도부, 당직 인선 막바지… ‘연포탕’ 실현 이목집중

〈국민의힘 당대표〉

〈연대·포용·탕평〉

김 대표, 주요 당직후보 접촉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 유력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주말에 김 대표는 주요 당직 후보들과 접촉하며 막바지 인선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윤(親尹석열)계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대표가 밝힌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재선의 이철규(강원 동해시 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살림살이를 챙기고, 내년 총선 공천 실무까지 챙기는 자리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주축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 총괄 간사인 이 의원이 유력 인사로 꼽히는 것이다. 재선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도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당의 전략·조직 관리 역할인 전략기획부총장과 조

직부총장은 조선 박성민(울산 중구),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 정책 사령탑인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이르면 13일 먼저 발표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과거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의원들이 직접 선출했으나, 현재는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자리에는 사무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정점식 의원과 함께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구갑), 송인석(경북 김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당 대표가 결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의 경우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현재 지도부에 TK(대구·경북) 인사는 김재

원 최고위원 한 명으로, 원내에서 보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배경 때문이다.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로도 하마평이 오른 이 의원이 거론된다. 대변인은 원내에서 조선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이용(비례대표) 의원,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 원외의 경우 윤희석 김기현 후보 캠프 공보총괄본부장과 김예령 캠프 수석 대변인이 각각 거론된다.

하마평에 오르거나 거론되는 주요 당직 인선을 보면, 친윤계 인사 위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특정 계파 일색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쟁자로부터 ‘수도권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대통령실과 친윤계 지지까지 받아 당선된 만큼 특정 계파 인사만 당직에 인선하는 게 부담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 하겠다고 했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직 인선에서 연대·포용·탕평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수처럼 표출되고, 그것들을 격의 없이 밤샘 토론한 뒤 결론이 나면 함께 수렴하고 원팀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다양성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구성된 것은 당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라며 친윤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지는 데 대한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은 당 대표가 뜻을 함께하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통령실 “바이든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요청”

윤 대통령에 세션 주재 초청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협력을 고대하고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3월 윤 대통령님과 코스

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며 “금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주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2023년 3월 30일 개최해 주시에 사의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님께서 3월 29일 정상회의 본회의 5개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하셔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힘과 잠재력에 대

해 진솔한 대화를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한국 측에 추가 상세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주최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유하는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진실임을 강화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월 그리고 향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민주당 “강제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결단 세뇌”

“친일 굴종외교 약속 들은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사 문제를 절단내 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은 친일 굴종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며 “일본 측의 반성과 사

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냐”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시작부터 굴욕외교의 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압도적 배후수요 쏟아지는 유동인구를 선점하라!

23년 2월
입주예정

대형병원이 선택한 바로 그 자리!



골든에비뉴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지구 골든에비뉴
PREMIUM

5

더블 역세권
망포역,
서천역 (예정)

동탄도시철도
101역
(예정)

선임대 3~8층
대형병원
입점 확정!

압도적 위치
사거리 코너
맨앞!

압도적 배후수요!
반경1Km내
22,566세대



병·의원
임대문의

031) 293-0700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 (주)
시공사: (주)한창종합건설
시행위탁사: (주)골든에비뉴

애플페이 임박… MZ세대 정조준 현대카드, 점유율 높일까

현대카드, 신용카드 점유율 3위
19~29세 아이폰 사용자 52%
우선 서비스 통해 MZ 확보노력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 과제 여전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현대카드가 우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MZ세대의 가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출시를 시시한 애플페이가 오는 20~24일 중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카드와의 독점 계약은 파기됐지만 우선 계약을 통해 한동안은 현대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국내 주요 카드사들 또한 애플페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우선 계약을 두고 MZ세대 소비자 확보의 포석이란 분석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앞서고 있는 연령대가 20대이기 때문

이다.

지난해 한국결제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만 18~29세의 아이폰 사용자는 5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삼성 갤럭시 사용자는 44%, LG스마트폰은 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현대카드는 '젊은 감성'을 내세워 MZ세대 확보에 속도를 냈다. 자사 플랫폼인 '현카연구소'를 포함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젊은 소비자를 정조준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또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MZ세대 확보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카드업계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점유율

은 16.0%로 8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 중 신한카드(19.6%)와 삼성카드(17.8%)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현대카드와 공동 3위를 차지한 KB국민카드(15.4%)는 업계 4위로 내려갔다.

애플페이가 이달 상용화되더라도 현대카드의 전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체크카드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오로지 '해외겸용' 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해외 결제 기술 회사의 마크가 들어가야 한다. 카드 신청 시 해외겸용을 선택하면된다.

결제돌로 지적받은 근거리 무선통신(NFC)단말기 보급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프렌차이즈를 중심으로 NFC단말기 보급 현황이 포착

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업계에서는 NFC단말기의 보급 수준을 1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달 신세계그룹은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사 지급결제수단인 '쓱페이'가 있어서다. 상용화를 시작해도 '애플페이 1호 사용자'로 불리던 스타벅스는 물론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한동안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유통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애플페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새 NFC단말기 보급 및 기존 단말기 업그레이드 일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등의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간편지급결제 시장에 한 차례 지각변동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4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10명 중 3명만 수용

소득 늘고 부채 줄어도 거절 많아
정책·시기 확인 후 재신청 해봐야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 결과 당해 내부 신용평가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연봉과 신용점수가 모두 상승한 직장인 김성훈(36·가명)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감면받았다는 소식을 들은데다, 올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은행 내부신용평가 결과 김 씨에게 대출금리를 인하여 줄 만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각 은행별로 수용률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대출금리는 상승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KB·우리·하나은행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차주가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기 위해선 개인의 조건과 시기를 자세히 확인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은 횡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어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

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예금·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정책자금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은행마다 수용하는 실적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승인 요건을 더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융당국 ATS 예비인가 27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시장규제와 상장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가능하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매뉴얼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7~30일까지다.

예비인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후 4~5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손보사 과당경쟁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닙니다"

금감원 Q&A

특약만 100개, 보장내용도 제한적
약관·상품설명서 꼼꼼히 확인해야

Q.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던데,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A.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통상 100개 이상의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어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구속·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사망 또는 실행 위법 및 중상선 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상태 시 경찰조사 등 제한적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보험금 지

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구남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IRP는 IBK에서'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IBK기업은행 세제 확대 'IRP' 가입고객 이벤트

IBK기업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가입고객과 신규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IRP는 IBK에서'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 자동이체 신규 등록(자동이체기간 12개월 및 이체금액 10만원 이상) ▲ 기존 자동이체 등록고객의 이체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증액 ▲ 자기부담금 1백만원 이상 추가입금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숙박권(3명)과 신세계 모바일상품권(2147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모바일앱(App)을 통해 IRP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평생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2일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IRP를 가입한 고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IBK 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와 수수료 면제 및 경품 이벤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막 오르는 주총… 화두는 사외이사·신사업·여성·주주가치

삼성전자 15일 정기주총 개최
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상정

LG전자 27일 주총, 사업목적에
기간통신업·화장품판매업 추가

SK하이닉스 여성 사외이사 확대
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 진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주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주총의 관전포인트는 사업확대와 사외 이사 선임, 주주가치 제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 사업 육성 집중 나선 ‘전자·車’

오는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 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삼성전자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다음달 17일 만료되는 만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다룬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4대 그룹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이사가 이사회에서



지난해 3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3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내리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책임경영 선언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27일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기간통신사업’과 ‘화장품 판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화장품판매업의 경우 LG전자가 판매하는 뷰티기기·의료기기와 결합해 사용이 필요한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고객의 구매를 돕고, 제품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LG전자는 미래 사업으로 육성중인 전장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가인 서승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1일 박상의 한

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LG화학은 28일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SK(₩)는 오는 29일 주총을 열고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또 1세대 미국 여성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의국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김주연 전 P&G 오럴케어&그루밍 한국·일본지역 부회장과 이복희 롬앤드하스전자재료사업피코리아 대표이사를 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는 28일 채은미 전 페덱스코리아 사장, 김정인 하이퍼라운지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

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주총서 여성 사외이사를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논의한다.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3일과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 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한다. 인증 중고차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계획했다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권고로 올해 5월로 진출 시기를 미뤘다. 최근 중고차 시장 침체로 중고차 사업 개시 시점을 올 하반기로 재차 연기한 상황이다.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 변화 예고

포스코홀딩스가 상정한 안건중 주목되는 것은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다. ‘본점소재지 변경’ 안건은 포항 시민과 관련 지역 단체들이 포스코홀딩스 본점 주소를 서울에서 다시 포항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당초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포항에 본점을 둔 반면 포스코홀딩스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로 옮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그동안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상경시위 등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본점 주소지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며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본점 소재지 변경 안건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도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상당수 이사들이 주주 가치 제고와 그룹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고려해 본사 주소지 이전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업체 고려아연은 오는 17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70년 넘게 동업을 유지해왔던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지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총 결과가 더 주목된다.

한국 조선업계의 만행인 HD현대는 변화를 예고했다. HD현대의 조선사업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승인받을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사업목적 변경을 통해 기존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건물 관리 및 용역업’으로 나뉘었던 조항을 ‘부동산업(개발, 매매, 임대,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관리 및 용역)’ 단일 조항으로 병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친환경 고효율 히트펌프로 유럽 공략

獨 ‘냉난방 공조 전시회’ 참가
가정용·상업용 솔루션 소개
‘씨마브이’ 유럽 ErP 등급 최고

LG전자가 유럽에 맞춤형 냉난방 솔루션을 앞세운 공조 기술력을 뽐낸다.

LG전자는 13일부터 1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2023’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489㎡ 규모 복스를 마련하고 가정용과 상업용 고효율 냉난방 공조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LG전자는 유럽 현지에서 탈탄소 기조에 따른 고효율 제품 인기에 따라 주목받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에 초점을 맞춘다.

‘씨마브이’가 주인공. 씨마브이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 P)’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유럽 ErP 에너지등급 중 가장 높은 A+++를 만족한다. 유럽에서는 공기열



LG전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2023’에 참가해 친환경 공조 기술력을 소개한다.

원을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높은 출력, 낮은 소음 구현 등 차원이 다른 기술력과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유럽시장 매출이 2021년 대비 12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히트펌프 설치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를 포함한 LG전자가 공조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2/3 이상

에서 지난해 히트펌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차세대 친환경 냉매 R290을 적용한 실내외기 일체형 히트펌프 신제품 ‘씨마브이 R290 모노블럭(Therma V R290 Monobloc)’도 공개한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하다.

LG전자는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냉매를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삼성웰스토리

친환경 패키지 개발 등 ‘ESG 파트너’ 됐다

원료사-제조사-업체간 의기 투합
재활용 용기 수거 프로세스도 추진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삼성웰스토리가 친환경 패키지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분당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윤승호 폴리머본부장(전무), 롯데알미늄 이상원 PM영업본부장(상무), 삼성웰스토리 김현 FSC사업부장(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료사-제조사-업체간 의기 투합으로 친환경 패키지 개발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4월부터 삼성웰스토리 급식 사업장의 프레시푸드 및 요거트 등 테이크아웃 제품에 친환경 용기가 사용될 예정으로, 향후에는 사용된 재활용 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프로세스 구축에도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삼성웰스토리는 각자의 감점과 노하우를 살려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관심 증가에 부합하는 패키지 개발과 ESG 경영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승호 롯데케미칼 폴리머본부장은 “고객사 및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며, “롯데케미칼은 고객사의 ESG경영에 최적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소재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원 롯데알미늄 PM영업본부장은 “이번 화학적 재생 수지를 사용한 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사진 (좌측부터 롯데케미칼 윤승호 폴리머본부장, 삼성웰스토리 김현 FSC사업부장, 롯데알미늄 이상원 PM영업본부장) /롯데케미칼

환경 패키징 개발 협약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 및 ESG 경영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롯데알미늄은 녹색인증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산업으로 앞으로 꾸준히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Every Step for GREEN』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사업의 규모를 100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원료부터 판매,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다.

특히, CR(화학적 재활용)기술은 기존에 재활용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의 소각, 매립을 막을 수 있어 탄소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며 친환경?탄소저감 포장재, 용기 등을 선호하는 고객사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삼성전자 소형가구 겨냥 비스포크 정수기 선포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스포크 정수기는 빌트인 디자인에 다양한 색상 출수구(파우셋)을 선택할 수 있어 주방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3일에 한번 내부관을 자동살균하고, 4시간마다 고인 물을 자동으로 배수하는 ‘스마트 클린 케어’ 기능으로 정기 방문 서비스 없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신제품은 최대 유효 정수량을 1500L로 줄여 1인 가구나 소형 가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실험 기관 NSF에서 정수 성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KT 윤경림號’ 닷 올리기 전 좌초위기… 2대 주주도 “반대”

현대차, 윤 후보 선임 반대 시사
국민연금도 반대표 행사 가능성

구현모 등 檢 배임 혐의 수사에
사외인사들도 잇따라 사의 표명
KT, 배임 의혹들에 “사실 무근”



KT 대표 최종후보 윤경림 사장

‘KT의 윤경림호’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강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오는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된 윤경림 사장(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윤 후보와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외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경림호가 제대로 안착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 주총서 반대표 던질까.

현대차그룹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4.69%)와 현대모비스(3.1%)는 KT의 지분 7.7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다.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선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 조차도 주총서 찬성표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든 ‘기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주주들이 윤 후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주총 결과는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인 ‘KT 주주모임’은 “정부 외압에 개인 주주들이 나서서 맞서겠다”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모임 회원수는 2주 만에 벌써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연금이 KT의 주식 584만8081주를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가

더욱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한 전자투표에 의결권 행사를 해 주총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현재 KT의 소액주주는 57.36%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집계된 주식 수는 이제 1%를 넘긴 수준이라, 아직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검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은 윤경림 사장과 구현모 대표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사장과 구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사람들이 KT텔레캅의 일감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줬으며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에 대한 수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구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현대차그룹 역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에 현대차그룹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구 대표와 윤 후보에 대한 배

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T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은 정당한 평가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량 몰아주기 여부는 현재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다. 또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사장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KT에 재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2021년 7월) 윤 사장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윤 사장 재입사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가 현대차에 지급 보증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외이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향

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압박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오히려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KT의 5개 호텔 사업 적자가 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정치권과 결탁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KT는 “KT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은 4곳이고 호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연간 적자 300억원을 기록한 바 없다”며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임의로 이익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KT는 최근 주총 소집 공고 정정 신고를 통해 ‘윤경림 대표 후보는 대표이사로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회이사 등 활동 내역’에 추가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들만의 리그’ 프레임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삼성SDS,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공략 속도

국내 유일 CSP, MSP, SaaS 제공
고객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보유

삼성SDS가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클라우드 기업이다.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DS가 직접 개발한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은 보안성·안전성·가용성 등을 요구하는 기업 고객의 니즈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를 통해서도 삼성SDS가 30년 이상 IT서비스 컨설팅·전환·구축·운영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

/삼성SDS

으로, 컨설팅부터 앱 현대화까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업무혁신을 위한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는 삼성SDS가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자동화(Brity RPA), 협업(Brity Works), 모바일보안(EMM) 등 자사 대표 솔루션들을 뜻한다. 또 글로벌 솔루션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공급망관리(Nexprime SCM), 인사관리(Nexprime HCM) 솔루션도 제공해 기업의 업무 혁신과 미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현대화를 지원한다.

삼성SDS는 이러한 클라우드 역량과 30년 이상의 IT서비스 경험을 종합해 다양한 기업을 위한 맞춤 클라우드를 제공할 것이며, 브랜드 슬로건 ‘Cloud. Simply Fit’을 함께 발표했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사장)는 “삼성SD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SP, MSP, SaaS를 함께 제공하는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에 필수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정보유출·접속오류 피해보상 논의 본격화

LG유플러스,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사례 분석 후 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종합 피해지원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족한 ‘피해지원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등 고객을 대표하는 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외부 전문가 총 6명과 LG유플러스 관련 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접

속오류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의 고객의 피해 접수 현황을 소개하고 보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 7일 기준 LG유플러스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접속오류 피해사례는 2284건이다.

서울YMCA시민중개실 한석현 실장은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LG유플러스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아키에이지 워’ 사전예약 200만 돌파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대작

카카오게임즈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 중인 대작 MMORPG ‘아키에이지 워’의 사전 예약자 수가 200만 명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는 지난 1월 16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예약자 100만 명을 모집한 데 이어, 오는 3월 21일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자 200만 명을 달성해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는 원작 ‘아키에이



지’의 IP를 활용한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MMORPG로, 원작 대비 질적인 전쟁과 전투 요소가 특징이다.

MS, 애저 오픈 AI서비스에 챗GPT 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 AI서비스에 챗 GPT 프리뷰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저 오픈AI 서비스는 오픈AI의 최신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난 1월 공식 출시됐다. 현재 1,000곳 이상의 조직이 이 서비스를 활

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고객은 GPT-3.5, 코덱스(Codex), 달리 2(DALL·E 2) 등 가장 진보한 AI 모델과 애저 슈퍼컴퓨팅 기반 대규모언어모델에 이어 챗GPT 기술도 보안, 컴플라이언스, 책임 있는 AI 등 애저가 제

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자들은 애저상의 챗GPT를 활용, AI 기반 경험을 손쉽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봇 개선, 콜센터 대화 요약, 개인 맞춤형 제안 등을 담은 신규 광고 캠페인 생성, 자동 클레임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2년째 감사의견 ‘거절’… 쉐마테라퓨틱스, 결국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16~24일 정리매매, 27일 상폐
올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 기업
상장사 60곳… 투자자 주의해야

일정실업, 감사의견 한정 받고
비케이탑스 등 5곳은 의견거절

코스피 상장사 쉐마테라퓨틱스가 올해 첫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기업으로 지정됐다.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10일 바이오 기업인 쉐마테라퓨틱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

〈코스피 관리종목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기업명	사유
쉐마테라퓨틱스	감사의견 의견거절 2년 계속(상장폐지 결정)
일정실업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비케이탑스	공시의무 위반,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쌍용차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선도전기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하이트론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에 따른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3월 27일이다. 이날 기준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 유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시장 5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피 종목은 비교적 시가총액

규모가 커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정실업의 경우반기 검토의견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비케이탑스·쌍용차·선도전기·쉐마테라퓨틱스·하이트론 등은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이중 쉐마테라퓨틱스는 상폐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2022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1곳이며, 이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곳으로 전체 28.1%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1.7%로 가장 높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사의 회계장부가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걸 의미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 대상이 된다. 코스닥 종목은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폐될 수 있다.

이전에는 단 한 번의 비적정 의견으로도 상폐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9년 기준을 완화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일 경우 상폐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단,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폐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이때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추후 상장위를 개최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가린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장기간 거래 정지로 투자금이 묶여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SM 인수전 일단락… 엔터주 ‘급락 주의보’

SM 시총 두배가량, 주가 93% 급등
YG엔터 31%, JYP엔터 15% 상승
단기간 급등… 단기간 하락 가능성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을 두고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에스엠 주가 급등에 따라 어부지리로 상승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인수 절차 중단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와의 경쟁 구도 심화와 주식 시장 과열에 따라 에스엠 인수를 위한 제시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당초 발표했던 에스엠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플랫폼 관련 사업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스엠을 비롯해 주가가 급등한 K팝 ‘4대 기획사’의 주가 향방



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조8258억원에서 지난 10일 기준 3조5192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가는 92.7% 늘었다. 특히 지난 2월 하이브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에 대해 각각 12만원, 15만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에스엠 주가는 연일 상승세였다. 이 기간 에스엠의 자회사인 영상콘텐츠 업체 에스엠씨엔씨(SM C&C)의 주가도 35.5% 치솟았다.

에스엠과 함께 4대 기획사로 꼽히는 와이즈엔터테인먼트(31.1%), JYP엔터테인먼트(14.6%), 하이브(5.9%) 등도 나란히 올해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에스엠 경영권 분쟁에 따라 엔터 업종 전반의 주가가 올랐다”며 “단, 에스엠 주가는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날(26일)까진 15만원선이 하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의 경우 이번 에스엠 인수 중단 결정으로 인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 중단의 이유로 주주 가치 훼손을 꼽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행동주의펀드 활동에 증권사 IB ‘훈풍’

SM·오스텀 경영권 분쟁에
미래에셋·한투증권 등 4곳
공개매수 주관 실적 총 4건

최근 주요 증권사 기업금융(IB) 부문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발한 활동으로 발생한 경영권 분쟁 등이 증권사 IB 부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과 오스텀임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으로 금융자문, 공개매수 주관 등 증권사 IB 부문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국내 상위 4개증권사는 3월 현재까지 경영권분쟁으로 총 4건의 공개매수를 주관, 지난해 1년간 실적(4건)과 동일한 실적을 올렸다.

엘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엘라인)이 촉발한 SM 경영권 분쟁에는 삼성증권이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측에, 한국투자증권은 ‘SM 경영진·

엘라인·카카오’ 연합전선측에 각각 공개매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는 40%지분 확보를 목표로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했지만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으면서 실패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7일 오는 26일까지 SM 주식 총 88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두 증권사는 적지 않은 주관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오스텀임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에는 NH투자증권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와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컨소시엄의 오스텀임플란트 인수 관련 자문과 공개매수 주관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오스텀임플란트 공개매수 수수료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은 오스텀임플란트건으로 부수익을 챙기고 있다. 컨소시엄이 2조1000억 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자금을 마련할 때, NH투자증권은 1조7000억 원을 브릿지론 형태로 제공해 대출 이자를 챙겼다.

/원관희 기자 wkh@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4주 연속 축소

전주대비 0.21% 하락 0.03%p↓
강북구 -0.33%서 -0.31%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위축됐던 매매수급지수는 다시 상승하며 회복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4%)보다 0.03%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3%→-0.31%)가 미아·변동 소규모 단지, 광진구(-0.37%→-0.31%)가 구의·광장·자

양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도심권에서는 중구(-0.27%→-0.25%)가 황학·흥인·회현동 구도심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3%→-0.42%)가 등촌·방화·화곡·염창동, 금천구(-0.49%→-0.46%)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구로구(-0.33%→-0.29%)는 개봉·고척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02%→-0.03%)가 잠실동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과 실거래가가 동반 상승하며 유일하게 상승으로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용산구(-0.19%→-0.23%)를 제외한 강남구(-0.14%→-0.10%)와 서초구(-0.09%→-0.01%)는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 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요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관망세가 여전히 유지중이고 매수·매도 희망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국 5개 단지서 총 2669가구 집들이

분양 캘린더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4곳 견본주택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669가구(일반분양 266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코아루리더스원’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

서 개관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 2신도시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1회차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 12층, 13개동, 8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총 2회에 나눠 분양하며 전용면적 99·115㎡ 437가구를 1회차에 분양한다.

신도시 내에 위치한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 교육시설은 물론 공원, 상가 등의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동탄역을 중심으로 GTX-A(오는 2024년 예정) 노선과 동탄도시철도(트램), 동탄인덕원선 등이 예정돼 있어 주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전세계 사계절 책임진다… 보일러 이어 ‘에어컨’ 글로벌 도약

경동나비엔

실내 공기질 관리·냉방시장
“HVAC 글로벌 기업” 진출 선언
보일러·온수기 등 25년 ‘2조’
신사업 통해 32년 ‘매출 10조’ 목표
평택 서탄공장 ‘글로벌 전진기지’
2200억 투자해 연산 440만대

“여보! 아버님댁에 에어컨 놓아드려야겠어요.”

90년대 초 방송을 탔던 경동나비엔(당시 경동보일러)의 CF “여보! 아버님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는 보일러 광고의 대명사로 꼽혔다.

그보일러를 만들던 경동나비엔이 이젠 에어컨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나섰다.

70년대 후반 연탄보일러에서 시작해 기름보일러를 거쳐 가스보일러 등 국민들의 겨울나기를 챙기고, 온수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던이, 이젠 실내 공기질 관리 및 냉방까지 가능한 ‘냉난방 공조(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하면서다.

전 세계인들의 사계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17년 당시 수출이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은 업계 전체 수출의



서탄공장에서 로봇이 VISION 검사를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88%를 담당할 정도로 수출에 있어서 경동나비엔은 ‘군계일학’이다. 지난해엔 업계 최초로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32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HVAC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도 내놔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 임원(부사장)은 “2021년에 매출이 1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2조원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매출 2조~3조원 업체가 가장 큰데 10개사 정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전세계 보일러(온수기 등 포함) 시장 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이가운데 약 10%, 즉 3조원 정도 매출이 우리의 한계일 것 같다”면서 “이젠 난방, 냉방,

환기 등 실내 공기질 관리까지 포함하는 HVAC 시장을 아우르면서 2032년 10조원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경동나비엔이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북미를 첫 공략지로 해 HVAC 분야의 글로벌 강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동나비엔은 경기 평택에 있는 서탄공장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평택은 경동나비엔 등을 포함한 경동그룹이 태동한 곳이다. 고 손도의 회장은 경동나비엔의 모태가 된 경동기계를 1978년 평택에 설립하고 이듬해 공장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콤팩트형 사각 기름보일러(코로나KDB-202)를 출시

한 것도 평택 공장 가동을 시작한 해다.

이후 제품과 물량이 늘어나면서 3개 공장으로 나눠 생산하던 것을 2014년부터 지금의 서탄공장으로 집중했다.

경동나비엔 배형민 서탄공장 관리부 문장은 “보일러, 온수기 등을 연간 200만대 생산하는 서탄공장은 면적만 4만평 규모로 업계에선 세계 최대다. 이곳에서 만든 제품은 4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2026년까지 6만평 규모로 늘리면서 생산규모를 연간 44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동나비엔은 부지 확보에 드는 1000억원 가량을 포함해 약 2200억원을 서탄공장에 추가로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생산, 검사, 물류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 전환(DT)을 통해 효율성과 품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확장될 서탄공장에선 기존의 보일러, 온수기 뿐만 아니라 북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신제품 ‘콘텐츠 하이드로 퍼네스’도 생산한다. 냉방 관련 신규 생산라인도 10만평을 계획하고 있다.

김용범 부사장은 “퍼네스는 한마디로 ‘화덕’이다. 기존의 퍼네스는 사실 안전하지 않다. 과거에 연탄을 때던 가정에서 방바닥 균열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유사한 이치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하이드로 퍼네스’는 물과 공기의 열교환을 통해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기의 질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난방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퍼네스만 450만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리형 에어컨이 아닌 공조 시스템을 통해 냉방과 난방을 하고 있는 북미지역의 냉방시장도 공략할 방침이다.

콘텐츠 하이드로 퍼네스와 최신형 인버터 압축기를 적용한 ‘히트펌프’를 연계해 난방과 냉방을 함께 제공하면서, 둘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운전 기능으로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방식이다.

또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실현하는 청정환기시스템과 콘텐츠 기술을 접목해 더욱 효율적으로 냉방하는 ‘콘텐츠 에어컨 하이브리드’ 제품도 새로 선보인다.

김 부사장은 “경동나비엔이 북미 다음으로 잡을 타깃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다. 우즈베크에는 법인을, 카자흐에는 파트너사가 있다. 당장 매출 성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한 곳”이라며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HVAC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라는 회사의 비전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조1601억원의 매출과 59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 기술신탁 올 500건 이상 유치 확대

2019년부터 시작후 매년 증가
기술탈취 방지 등 서비스도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목표로 민간 기술이전 확산에 힘쓴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신탁 계약은 총 464건으로 전년도 412건 대비 12.6% 증가했다.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다.

기보는 신탁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의 접점·기술평가 시스템·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탁 관리업무

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는 2019년 기술신탁 업무를 처음 시행한 이후 첫 해 219건, 2020년 317건의 계약을 유치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와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특허연차료 등의 납부 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 대행 ▲특허전략 컨

설팅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기업은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거래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과 신탁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받는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당시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변리사가 추천해 기술신탁하는 경우엔 추천변리사를 통해 기술신탁에 부수되는 특허소유권 이전업무와 특허전략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KCC, 휴대폰 커버용 고반사 코팅기술 국내 첫 개발

KCC가 플라스틱(PET)에 적용하는 ‘UV경화형

고반사 코팅’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마쳤다. 12일 KCC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자동 롤러로 소재 표면에 도료를 연속으로 도장하는 ‘롤 코팅’ 방식을 활용해 코팅 속도가 빠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해 생산 효율이 높고 도료가 얇고 균일하게 도장해 다양한 색상을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KCC

천연석 구현한 ‘하이맥스 그라빌라’ 출시

LX하우시스,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공간 면적 재단 쉽고 가시공 편의성 ▲

LX하우시스가 봄 인테리어 성수기를 맞아 국내 시장 전용 아크릴계 인조 대리석 신제품 ‘하이맥스 그라빌라’를 출시했다.

12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하이맥스 그라빌라’는 천연석처럼 질이 촘촘히 박혀있는 기존 칩 디자인 제품 위에 깃털이 은은하게 흩날리는 무늬 패턴을 더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제품 기본 색상 별로 같은 색상에서

밝기와 농도를 다르게 구현하는 기법인 ‘톤온톤(Ton on Ton) 기법을 적용해 기존 칩 패턴 제품보다 더 깊이 있는 천연석 표면 질감 느낌을 표현했다.

공간 면적에 맞게 재단이 쉽고 접합 부위의 이음매를 더욱 자연스럽게 마감 처리할 수 있도록 패턴 무늬가 짧게 반복되는 디자인을 적용해 가시공 편의성도 높였다. 이러한 뛰어난 가시공성으로 가정의 주방 상판과 주방 벽(미드웨이)뿐만 아니라 호텔, 병원, 레스토랑 등의 안내데스크, 벽체까지 주거 공간은 물론 상업용 건물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해외 수출 활성화 … 기술교류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이노비즈協, 우즈베크·베트남·인니
캄보디아·필리핀 대상 상담회 개최

이노비즈협회가 국내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해외기술교류상담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융복합 기술교류촉진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술교류상담회는 한국 정부와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정부 간 협력사업(G2G)이다. 한국의 기술을 현지기업에 수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노비즈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국가별로 20개사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해외기술교류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칭기업 발굴 ▲현지차량 및 현지어 통역 ▲상담장 임차 ▲전문가 기술진단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칭기업과 사전 온라인 상담 후 현지에 파견된다. /김승호 기자

‘특성 독성물질 금지’ 등 수출 기술규제 6건 이의 제기



‘WTO TBT 위원회’ 참가

캐나다·EU·인도 등 3국 대상
기술규제 애로 6건 해소 나서
국표원 “韓 수출지원 강화”

캐나다의 특성 독성물질 금지 규제,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등 우리 기업 제품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이의 제기를 통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캐나다	1건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EU	1건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인도	4건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안전조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

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캐나다 ‘특정 독성물질 금지’, 유럽연합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조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

증’ 등 6개 규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기술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측은 향후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기술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중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를, 4월엔 ‘한-영 FTA TBT 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4번째)과 관계자들이 상파울루지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aT, 중남미 시장에 K-푸드 진출 본격화

브라질 상파울루 지사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남미 시장 K-푸드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12일 K-컬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거대시장 공략을 위해 상파울루 지사를 개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개소식에는 황인상 주 상파울루 총영사,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Conab) 상파울루의 해나다 모라이지 비센치 까마르고 지사장, 하운상 중남미 한국식품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아르헨

티나, 페루 등 K-푸드 수입바이어와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6억 인구 중 3분의 1 수준인 2억1642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7위 인구 대국이며,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 전체 중위연령이 31세 수준으로 인구 구성이 타 권역에 비해 젊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브라질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을 향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K-푸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브라질을 거점으로 남미 미개척시장 개척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등유·LPG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 지원

대상 가구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카드 신청
차상위, 행정복지센터 쿠폰 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다만,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제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다.

대상 가구는 오는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는 소득기준과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받거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등유 판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

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인데, 작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기한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 서류 제출 시 등유·LPG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용기한 중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인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

이 가능하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상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해준다. 전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따로 공급자가 신청하는건 없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中企 을 퇴직연금 가입 5년간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이 올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하면 향후 5년 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800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제도에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중진공, 인적자원 진단모형 개발… 인재 육성에 힘써

올해 지원규모 40개社로 늘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적자원 개발(HRD) 진단모형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HRD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HRD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통해 업종·업력·종업원 규모를 반영한 144개의 중소벤처기업 HRD 표준화

역량모형을 개발했다.

HRD 진단은 중소벤처기업 임원·관리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 HRD 현황을 사전조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HRD 수준과 필요역량을 파악해 공통·직급·직무별 교육과정 연계추천, 교육 계획 수립, HRD 로드맵 수립 등을 진단결과로 제시한다.

지난해 20개사를 대상으로 HRD 진단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의

95.6%가 진단결과를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함에 따라 올해는 지원규모를 4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IT업·도매업·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추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이철우 “위스키보다 오랜역사 ‘안동소주’ 명품주 만든다”

〈경북도 도지사〉

경북, ‘안동소주 세계화 T/F’ 구성
김창수위스키증류소 26년까지 조성
홍보관 건립, 양조장 체형 등 진행
인플루언서 통해 홍보 전략 마련

경북도는 위스키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품질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안동소주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위스키류 수입액은 전년대보다 52.2% 늘었다. 특히 스카치 위스키의 산업규모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조원을 기록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90%는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브랜드들은 위스키의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증류소 투어와 위스키 시음 등 체험상품을 지역의 명소와 연계해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관광 효자상품으로 정착시켰다.

중국의 마오타이도 고급 브랜드 유지와 다양한 소비자를 겨냥한 중저가 브랜드 발표하고, 일본은 2022년 1조 3300억 원의 주류를 수출했으며, 위스키 수출액은 5355억 원을 달성했다.

경북도의 지난해 전통주 출고액은



전통주 업체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뉴스

143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84억 원보다 70%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스카치 위스키협회 관계자를 만나고 위스키 제조업체와 증류장비 제조회사를 살피고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카치 위스키의 세계화 전략을 지역 전통주에 도입하고자 지난 11일 안동의 안동소주(대표 김연박)와 밀과도널다(대

표 박성호)를 둘러봤다.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김창수위스키증류소는 2026년까지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200억 원을 투자해 위스키 제조공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경북도, 안동시, 전통주 제조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안동소주 세계

화 T/F’를 구성해 대표상품 개발, 안동소주의 산업화 및 세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동 명소에는 안동소주 홍보관을 건립하고, 술 품평회, 양조장 체형, 소주 시음행사 등을 진행하며, 양조장에 시음·체험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동소주 원료, 도수, 숙성도 등 규격화된 도지사 인증 품질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주류 전문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 등으로 수출확대에 나서고 안동소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식품 가공 육성사업,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트로트 가수, 인플루언서 등을 간판으로 내세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 전략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소주는 스카치위스키, 중국의 백주와 일본 청주들과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술인데 너무 저평가됐다. 한류를 활해 안동소주를 대한민국의 명품을 넘어 세계 명품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경남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영덕군

취약계층 식료품 무상 제공

영덕군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지역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기부받은 식료품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 나눔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개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지원되며, 기부자에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4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관내 취약계층 주민 2558명과 사회복지시설 60여 곳에 전달했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mjongsoul@

고창군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접수

전북 고창군이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향상, 식량산업 다변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정해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목표로 논 활용 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벼를 재배하던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울산시

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점검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점검반이 편성돼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된다. 점검과 함께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전, 봉계, KCC, 모둘화, 길천2차(2단계), 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용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인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용벽 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 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설명회.

장애인복지에 1580억 투입

광주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추진

광주시가 올해부터 4년간 1580억 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 장애인친화도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12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4년간 1580억 원을 투자해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 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 취업 지원과 권리 중

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을 견고히 한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광주모델을 전국화 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연계, 호남권 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2024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

80여 개국 1400여명 방문

부산시는 자원봉사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2024세계자원봉사대회(2024 World Volunteer Conference)’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사 주최 기관인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에 세계대회 부산 유치 의사를 밝힌 후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관광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IAVE (International Associati

on for Volunteer Effort)는 자원봉사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민간 기구로 1970년 창립해 현재 80여 개국의 개인, 단체, 기업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유럽 연합 비영리 단체(NGO) 등과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유치로 2024 세계자원봉사대회는 2024년 11월 중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80여 개국 1400여 명의 자원봉사 리더와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전남, 소상공인에 5년간 3조3000억 보증

중·저신용자 위주 보증 지원

전남도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년간 3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300억원을 전남신

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매년 6600억원씩, 2027년까지 3조 3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경남, 올 중대재해 예방·감축 원년 집중

경남도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 원년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59건이 발생해

92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앞서 2021년보다 12건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13명 줄었지만,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서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이나 증가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동원, 참치사업 넘어 바이오·프랜차이즈로 ‘제2 도약’



동원그룹이 대형 인수합병(M&A)과 신사업을 추진하며 그룹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69년 원양어선 선장 출신 김재철 명예회장이 세운 동원산업을 모태로 하는 동원그룹은 초기 수산업에 주력으로 하다가 1982년 11월 국내 최초로 참치 캔을 출시하며 식품사업에 등판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자회사 동원 F&B를 설립하고 냉장·냉동 및 조리 식품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참치 사업의 안정된 수익원을 바탕으로 포장재, 물류, 식품 등으로 빠르게 사업 영토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또 한 번 제2의 도약을 위해 대형 M&A 추진에 나섰다.

12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동원그룹은 수 년 전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사업을 눈여겨봐왔으며 지난달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보령바이오파마 인수에 나섰다.

동원그룹은 지난달 23일 보령바이오파마 인수를 위해 보령파트너스와 양해



서울 시내 맥도날드 전경

/뉴시스



식물성 대체식품 ‘마이플랜트(MyPlant)’ 제품 라인업

/동원F&B

보령바이오파마 인수 ‘단독실사’ 연구개발 투자, 식음료 시너지 기대

한국맥도날드 예비입찰도 참여 동원푸드와 식자재·물류 협동

엔터프라이즈와 합병, 계열사 강화 마이플랜트 론칭, 대체식품 공략

각서를 체결했으며, 단독 실사에 들어갔다. 동원 측은 “실사 후에 배타적 협상권을 가질지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는 보령그룹에서 백신 및 신약 개발을 맡고 있는 계열사다. 특히 국가예방접종백신 품목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를 품으면 당장의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연구 개

발에 지속 투자하면 기존 식음료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동원그룹의 바이오 기업 인수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식품 시장 한계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주요 유통기업들이 바이오 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리온은 중국 산둥루강 제약과 중국 내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바이오 시장에 진출했고, 대상그룹도 바이오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힘쓰고 있다. CJ제일제당도 농업·식품 부문 ‘그린바이오’, 환경·에너지 부문 ‘화이트바이오’, 의료·제약 부문 ‘레드바이오’ 등 3가지 축으로 바이오사업을 운영중이다.

동원그룹은 이보다 앞선 1월에는 한국맥도날드 예비입찰에도 참여했다. 한

국맥도날드의 새 주인이 되면 현재 식자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푸드와 식자재·물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동원푸드는 2021년 축육 사업을 신설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식자재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확보하고, 동원푸드는 400개 체인점에 대한 독점적 식자재 공급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전국 물류망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동원로엑스를 통해 전국 400여곳의 맥도날드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

동원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 인수는 검토 중이며, (한국맥도날드 외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11월 주력 회사인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을 마무리했다. 당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계열사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신사업의 일환으로 동원F&B는 최근 식물성 브랜드 ‘마이플랜트(MyPlant)’를 론칭하며 대체식품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내가 선택한 식물성 레시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마이플랜트’ 브랜드는 동원F&B의 스테디셀러인 참치와 만두 7개 제품에 우선 적용됐다. 식물성 참치와 만두 제품 모두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콜레스테롤 함량이 0%이며,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동원F&B는 식물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맛과 영양을 모두 구현한 점을 ‘마이플랜트’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축적된 참치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참치와 동일한 식감을 낼 수 있도록 참치 특유의 살코기결, 형태를 만들어냈다.

동원F&B 관계자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에 따라 브랜드 전반의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식물성 제품군을 확대해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 美서 식물성 간편식 선배… 대체육 시장 공략

‘2023 자연식품박람회’ 참가
네슬레·다논 등 3182개 기업 참여
대체육스테이크 등 간편식제품 소개
2025년 관련매출 1.7조 달성 목표

풀무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현지시간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3 자연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 2023)’에 참가해 식물성 지향 간편식 제품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자연식품박람회’는 올해 42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네슬레·다논·스타벅스 등 총 3182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6만여명의 식품 관계자가 방문했다. 풀무원은 지난 2003년부터 총 17번 참가해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왔다.

풀무원의 미국법인 풀무원USA는 이번 박람회에서 식물성 대체육 스테이크와 토핑 두부 신제품을 비롯해 식



풀무원USA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자연식품박람회’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들에게 풀무원의 다양한 식물성 지향 혁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풀무원

물성 볶음밥, 두부텐더, 만두 등 풀무원만의 차별화된 식물성 지향 간편식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첫 선을 보인 ‘식물성 대체육 고추장 스테이크’와 ‘스위트 칠리 토핑두부’는 K-푸드의 특색을 반영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식물성 대체육 고추장 스테이크’는 숯불에 구운 식물성 스테이크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곁들인 제품이며, ‘스위트 칠리 토핑두부’는 구운 두부에 한국식 칠리소스와 참기름, 마늘, 생강 등을 가미한 제품이다. 이 두 제품은 스프라우즈 파머스 마켓, 알버슨스를 포

함한 현지 대형 리테일 유통채널에 올 봄부터 입점될 예정이다.

풀무원은 지난 2021년 3월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한 이래 다양한 식물성 대체육 및 식물성 단백질 신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며 글로벌 식물성 지향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인 ‘지구식단’을 정식 론칭하고 식물성 두부텐더, 숯불직화불고기, 한식교자만두, 런치미트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식물성 지향 신제품을 속도감 있게 출시하고 있다.

한편, 풀무원은 전사 핵심 목표로 2025년까지 식물성 지향과 동물복지 식품 전략을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성장동력인 지속가능식품 매출 1조7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

현대백화점면세점 한국조폐공사 등 4곳과 NFT커머스 프로젝트 협약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올림플래닛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 디지털 아트 기업 스마스월드, 메타버스 전문 기업 올림플래닛, NFT 콘텐츠 전문 기업 엔에프티코리아와와다자간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FT 아트 작품 제작·유통 협력 ‘NFT 커머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이다. 스마스월드는 한국, 미국, 독일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하는 작가 5명이 모여 결성한 NFT 전문 아티스트 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4개사와 골드바가 결합된 NFT 아트 작품을 제작하고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을 통해 한정수량 판매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신세계백화점 ‘소중한식사’ 예약 론칭

신세계백화점이 상차림 서비스 ‘소중한식사’ 예약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차림 서비스 소중한 식사는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에서 서비스한다. 생일상은 물론 제사상 등 다양한 상차림을 대신한다.

소중한식사는 판교에 위치한 반찬가게로 조리 시 화학조미료나 합성향료를 최소화하고 있다. 1인 생일상의 상품 구성은 생일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을 비롯해 불고기, 치킨 샐러드, 전 3종으로 6만원을 넘지 않는다.

/김서현 기자

롯데면세점, MAS로 개개인에 ‘조정밀 마케팅’

회원 등급·출국일정 기본정보 넘어
구매 특성·취향 등 반영 정보 제공

롯데면세점은 전 세계 면세업계 최초로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주남롯데면세점대표이사는 취임 직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신년

사에서 “글로벌 리딩 면세점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우리 회사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의 첫 결실은 ‘MAS(마케팅 자동화 시스템)’다. MAS는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반복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고객 개개인 대상 ‘조정밀 마케팅’을 가능케 하는 AI·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롯데면세점은 고객의 쇼핑 행태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마케팅 시스템으로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마케팅의 경우 회원 등급, 출국 일정 등 매우 기본적인 고객 정보만을

반영해 메시지 발송 중심으로 이벤트 안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MAS는 이러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동안 구매했던 상품의 특성, 페이지별 체류 시간, 행사 반응률 등 세분화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이벤트 정보를 최적의 시점에 제공한다.

7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 고객 유입은 기존 시스템 대비 6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구매 유도 성공률은 75%에 육박했다.

/신원선 기자

없는게 없는 편의점... 1인가구 장보기 ‘미니마트’ 역할 톡톡

편의점 점포 수 4만5975개
신선식품, 즉석식품 등 매출 ↑
자사계열 PB상품 등 구색 넓혀
먹거리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

편의점 점포 수가 5만 개를 넘으면서 ‘미니 마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에 출점 제한을 받으며 핵심 상권 내 진출에 밀리는 동안, 소자본·은퇴 후 창업 아이템 등으로 각광 받아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확장한 덕이다. 여기에 편의점 기업들이 차별화 상품으로 자사 계열사 내 PB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며 구색도 넓어져 소형 가구의 대형마트 대안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12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 내 간편 식자재 구입 빈도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총 4만5975개다. 현재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밀집했으나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군소 도시에도 계속 출점이 이루어지면서 인접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점포에서 고객이 할인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점포 간 평균 직선거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0년 자료 기준 224.9m로 줄었으며 가장 가까운 서울시 중구의 경우 75.8m에 불과하다.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383개에 이르렀던 점포 수가 2017년 423개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384개로 줄어든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신규출점을 어렵게 하고,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하자 대형마트 업계는 신규 출점보다

는 구조조정 및 기존 점포 재개발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대형마트가 주택가에서 멀어지자 주민의 장보기는 온라인 장보기 e커머스 와 편의점이 대신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산업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유통업 내 편의점이 차지하는 매출 구성비는 14.9%에 달하는데, 평균 구매단가는 7172원으로 전 업태 중 가장 낮다. 특히 편의점 내 신선식품 일부를 포함

한 즉석식품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2.1%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생활용품과 잡화도 각각 17.2%, 10.3% 늘었다. 식품과 생활용품, 잡화의 매출이 매년 크게 성장하면서 40%대 비중을 공고히 하던 담배 매출 비중은 2022년 9월 39.1%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연 평균 40.4%로 마감했다.

1·2인 가구의 증가도 편의점 장보기의 일상화에 유의미하게 적용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자재와 물품의 대용량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편의점은 1인 고객을 겨냥해 상품을 구성해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산업의 변화에 미니 마트로 꾸린 점포와 같은 계열사 내 장보기 상품을 함께 다루는 점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서울 사당역 인근에 ‘푸드드림 2.0’ 1호점인 푸드드림ECO 사당점 매장을 열었다. 푸드드림 매장은 차별화한 먹거리와 넓고 쾌적한 쇼핑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매장 형태로, 일반점포 대비 규모가 큰 약 30~40

평의 공간에 시식공간까지 갖춰 도시락과 HMR을 비롯해 국수, 치킨, 슬러피, 걸프음료 등 이색 즉석식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담배 중심의 기존 편의점 매출구조를 탈피하고 먹거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꾸려진 결과다.

이윤호 세븐일레븐 DT혁신팀장은 “기존 편의점의 역할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먹거리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의 미래가치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24는 최근 같은 계열사 내 이마트의 PB 상품을 적극적으로 편의점 상품으로 추가하고 할인상품으로 적극 판매 중이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이마트 최근 3개월(22년 11월~23년 1월)간 대용량 생필품(위생용품, 가사용품 등의 생활필수품)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내에서의 장보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편의점 상품군에 이마트에서 판매 하던 PB상품 피코크와 노브랜드 상품 수를 계속 확대 중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코로나19 치료제 증상개선 4일 단축”

HYUNDAI
BIOSCIENCE

‘CP-COV03’ 임상2상 결과 발표
질병청 등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CP-COV03’가 증상 개선 시간을 4일 단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따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모두 충족한 치료제다. 회사측은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이 같은 CP-COV03의 임상2상 타당성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12개 증상을 대상으로 한 CP-COV03의 1차 유효성 평가 결과는

특히 신뢰도 99% 이상에서 나온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시오노기제약의 조코바는 5개 증상 개선 소요 기간 단축을 1일(24.3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FDA는 코로나19 임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시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 총 14가지 증상을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세계 각국이 이를 신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코바는 임상2상에서 12가지 증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충족에 실패, 임상3상에서 평가 증상을 5개로 줄여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이자의 파스로비드는 11개 증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CP-COV03는 이번 임상에서 혈액 중 약물농도가 높아질 때 바이럴로드가 줄어드는 경향을 신뢰도 99% 이상에서 나타냈다. 이는 CP-COV03의 약물농도와 바이럴로드 간 상관관계가 인체 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타당성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 임상2상을 통해 발견한 최적투여량(300mg)으로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화의료원 녹내장 시력 회복 어려워 검진 필수

40세 이상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

녹내장은 백내장과 이름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백내장은 수술 치료가 가능해 완치될 수 있지만, 녹내장은 한번 진행되면 손상된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4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대목동병원 안과 서울 교수는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녹내장의 특성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매년 3월의 한주는 세계녹내장협회가 정한 세계 녹내장 주간이다.

서 교수는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녹내장은 시신경에 병



이 생기는 질환으로 완치나 회복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녹내장 치료는 약물치료, 레이저치료, 수술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 개인별로 녹내장의 진단과 단계에 따라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촌설령탕 봄맞이 보양 10% 할인

설령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촌설령탕’이 봄 시즌을 맞아 보양 메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촌설령탕은 매년 봄 시즌마다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인기 보양 메뉴를 선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봄날은 벚꽃엔딩, 한촌 보양은 네버엔딩’이라는 콘셉트 아래 한촌설령탕의 대표 보양 메뉴를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해당 할인 프로모션은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뉴는 콜라겐이 가득한 소 도가니를 꼭 고아 만든 ‘도가니탕’과 소한마리를 푹 고아 만든 ‘그릇에 담은 한촌탕’, 소위와 소곱창 등을 넣어 우려낸 ‘양곱창’ 등 3종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라떼 주문 시 ‘샷 추가’ 이벤트

‘러브 유어 라떼’ 20일까지 진행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카페 라떼 주문 시 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무료로 제공하는 ‘러브 유어 라떼(LOVE YOUR LATTE)’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대중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카페 라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러브 유어 라떼’ 이벤트를 통해 스타벅스의 커피 헤리티지 경험을 전달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춤 음료로 주문할 수 있는 퍼스널 옵션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현재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 시, 음료 1잔 당 엑스트라(샷, 시럽, 휘핑크림 등) 1개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벤트 음료는 카페 라떼, 블론드 카페 라떼, 디카페인 카페 라떼, 1/2 디카페인 카페 라떼 등 총 4종이 해당된다. 이벤트 기간중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스타벅스 파트너에게 카페 라떼를 직접 주문 시 요청하면 에스프레소 샷 1개를 추가하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사이렌 오더 주문 등은 적용 불가)

한편, 스타벅스는 화이트 데이 시즌을 맞아 지난 7일 ‘LOVE’, ‘LOVE ME’로 유명한 아티스트인 커티스 쿨릭과 협업한 푸드와 MD 등을 선보였다. 커티스 쿨릭 협업 푸드와 MD를 포함해 3만원 이상 구매 시 커티스 쿨릭의 아트웍으로 디자인한 대화용 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버나젠, 美 질병청과 백신개발 협약

‘하트랜드바이러스’ mRNA 백신

에스티팜은 미국 자회사 버나젠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하트랜드바이러스(HRTV)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mRNA 백신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버나젠은 에스티팜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바이오텍이다.

HRTV는 일리노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캔자스까지 미국 중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주로 론스타 진드기에 물려 감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SFTSV)와 동일한 플레보바이러스에 속한다.

감염 증상은 주로 발열, 피로감, 근육 및 관절 통증이다. 노인 환자의 경우 백혈구 및 혈소판 손실을 가져와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사율은 11~13%에 달한다. 현재 대다수 미국인들은 하트랜드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으며 감염 가능성이 높음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이세경기자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임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임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대전 지역아동센터 쌀 600포 기부

롯데케미칼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대전 지역아동센터에 쌀 10kg 600포를 지난 10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쌀은 지역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인근 농가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었다. /롯데케미칼



현대백, ‘제주도 돌팽이와 갈치’ 전시회 개최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 1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3층에서 ‘제주도 돌팽이와 갈치’ 전시회를 연다. 스페이스원 3층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MOKA) 가든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비영리단체인 ‘제주도서관친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지원으로 완성한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란 그림책에 실린 작품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스폰서십 체결

CJ대한통운이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8년 연속 타이틀 스폰서십을 이어간다. CJ대한통운은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슈퍼레이스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8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윤영국장(파견) 조오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우영 △산재보상정책과장 신호철

부음

▲오인환씨(전 연세대 대학원장·신문방송학과 교수) 별세, 공정자씨(인하대 명예교수) 배우자상, 오세관씨(재미치과의사) 부친상, 한수진씨(미국 국방외국어대 교수) 시부상=1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20분, 장지 광릉추모공원, ☎ 02-2227-7500

▲심재익씨(전 잡사회 회장) 별세, 준보(점보 대표이사)·소희(이화여대 교수)·은보·정원씨 부친상, 이영현(전 과학기술대 교수)·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전진홍씨(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장인상, 최지혜씨 시부상=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 02-2227-7500.

▲임효순씨 별세, 김연옥씨 남편상, 태창·태식·근식(보협매일 GA 미디어 국장)·윤서씨 부친상=11일, 경북 안동시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안동 장사문화공원 ☎054-820-1494

▲이중우씨 별세, 동경씨(연합뉴스 동호·다문화부장) 부친상=11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 054-245-0444, 010-5188-7079

조옥제 “유일한 박사 기업이념 바탕 미래비전 달성”

(유한양행 사장)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추모식

유한양행, 유한재단 등 500명 참석
유 박사 애국정신·기념이념 되새겨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기업 이념을 되새겨 더욱 정진하겠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2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월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유족 및 조옥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유한양행 조옥제 사장은 추모사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월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유한양행

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은 그 모든 것이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진취적인 기업가요, 선구적인 교육가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 이셨음을 되새기게 한다”며 “유한양행은 핵심가치인 프로그레스와 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찬란한 100년사 창조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유한재단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유한학원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

현대車, ‘포 투모로우 프로젝트’ SXSW 최종후보 선정

사회 문제 해결 풀뿌리 플랫폼
파이널 리스트 기념 영상·사진 전시

현대자동차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한 ‘포 투모로우’(for Tomorrow) 프로젝트가 ‘2023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이노베이션 어워즈’ 미디어 부문 파이널 리스트(최종후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화·음악·IT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예술 축제인 SXSW는 1787년 지역 음악 페스티벌로 시작해 스타트업 주도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거듭났다. 올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for Tomorrow’의 포스터

이달 10~19일 열린다. SXSW는 매년 행사 기간 중 미디어·지속가능

성·디자인·인공지능(AI) 등 14개 부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포 투모로우’는 교통·주거·환경 등 오늘날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 각계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을 모아 세부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풀뿌리(grassroots)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현대차와 UNDP가 2020년 9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현재 52개국에서 84개의 솔루션이 제안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차는 파이널 리스트 선정을

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기념해 프로젝트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11일(현지시간) 텍사스 JW메리어트 오스틴에서 전시했다. SXSW 이노베이션 어워즈 최종 수상작은 13일 전문 심사단 심사와 관객 투표를 통해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UNDP 합작 프로젝트의 혁신성과 진정성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쁘다”며 “전세계의 풀뿌리 솔루션들이 서로 혁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대-UNDP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더 많은 글로벌 시민들이 전지구적 활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이노 튀르키예 구호물품 1030점 기부

전 사업장 구성원 229명 참여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자발적인 구호물품 기증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전 사업장에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캠페인

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229명의 구성원들이 겨울용 의류와 담요, 침낭, 핫팩 등 1030여 점에 이르는 구호물품을 모아 기부했다. 구호물품은 이달 중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보건 및 위생상태를 고려해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으로만 기부를 진행했다. 방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지난 3일 SK 서린빌딩(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역에 전달할 구호물품을 포장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한용품 역시 중고제품이라도 상태를 꼼꼼히 검수해 기부를 받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스타필드 “플라워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쇼핑테마파크스타필드가마스크 없이 향긋한 꽃내음을 맡을 수 있는 첫 번째 봄을 맞아 ‘플라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먼저, 기념일을 위한 화려한 꽃다발 대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꽃을 즐기고 싶다면 오는 23일까지 스타

필드 안성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필드는 꽃 정기구독 브랜드 ‘꾸까’와 함께 유려피안 감성의 재래식 꽃 시장을 마련했다.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는 15일까지 싱그러운 생화

가 가득한 ‘프레시 가든’ 플라워 마켓이 열린다. 화사한 봄꽃은 물론 공기정화식물과 다양한 화분이 준비되어 있어 꽃송이가 피어나는 활기찬 플랜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격이다.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핑크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웨이

“새싹 키우기 도전하세요”

코웨이가 ESG 활동 일환으로 고객과 함께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그린 그로잉(Green Growing)’ 새싹 키우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2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새싹 키우기 챌린지는 오는 4월5일 식목일과 4월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코웨이는 미니 케일 씨앗 등이 들어있는 친환경 새싹 키트를 증정해 녹색자원 보호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키트는 종이화분으로 구성되어 새싹이 자라 옮겨 심어야 할 때 화분째로 묻어도 흙 속에서 자연분해한다.

코웨이 그린 그로잉 챌린지는 이달 19일까지 코웨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총 100명을 선정해 친환경 새싹 키트를 증정하며 뽑힌 참가자들은 새싹 키우기 활동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회를 올리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샘플하우스 오픈

제주도 최고급 모던 하우스 - 안트레힐

사명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드라마 '우리들에 블루스' 촬영장 인근



| 문의방법 |

- 문자를 주시면 실 동영상, 사진진과 특징점을 보내드립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보내 주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10-6230-1828

함께 갈등없이 행복하게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 건축주 올림

가격

17억~20억

대지 약 190평

건평 약 77평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68번지 안트레힐

챗gpt도 아는 저출산 해법



김 승 호 의
시 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하고 만병 통치약이 없다.”

요즘 유행한다는 챗gpt에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다정하게도 챗gpt는 여기서 답변을 끝내지 않았다.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고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은 ‘몇가지 조치’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유연 근무제도 및 일·삶의 균형 확립 ▲보육 지원 개선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주거 비용 완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부부가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거

나 늘어난다. 우린 그 3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2021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은 1년 사이 더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다.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때 저출산·고령화의 상징으로 꼽혔던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아기 울음 소리가 적게 난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왜 힘들까.

챗gpt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한국 정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및 보육 지원 확대와 같은 몇가지 정책을 폈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역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갖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 공무원이 저출산 해결책을 찾는 어떤 토론장에서나 했을 법한 뻔한

이야기를 꺼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나 AI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테니 말이다. AI가 사람을 ‘디스(diss)’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인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 근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해법을 내놔야한다. 더이상 미룰 일도 아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한 시절을 품미했었다. 깊은(?) 고민끝에 나왔을 그 문구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위원회 소속 한 위원을 소개하면서 “(결혼을 안해)저출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거기까지였다.

현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저출산·고령화에 관련한 제발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고민만하다 좀치지말고 해법을 모를땐 AI에게라도 물어봐라.

/bada@metroseoul.co.kr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택시요금인상’



김 지 수 섭
최 빛 나
(산업부)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시행된지 약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큰 개선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택시 대란을 해소하고자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기사 수입과 택시 공급이 함께 늘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순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지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시간과 심야 시간 대 택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업계 내 불멘 소리가 가득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한데 따른 결과다.

일환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 시켰지만 택시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와 심야 할증 확대, 공급, 수요 확대를 위해 요금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이에 서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고, 운행에 따른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었다.

업계 대부분은 요금 인상 시행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가 추가로 도심에 넘쳐나면서 과잉 공급 사태가 생겨났다. 또한 주말, 심야에만 택시가 몰리면서 정작 수요가 적은 시간대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졌다. 앱을 이용한 택시 잡기 경쟁이 불붙으면서 가맹, 비가맹간 의견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공공요금과 물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택시 대란이었던 오후 11시부

터 새벽 2시사이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줄었고 거리엔 일명 ‘갈뺑’하고 있는 택시들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인상으로 인한 앞서 부작용은 택시업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한다. 수익 상승을 위해 요금인상을 단행했지만 정작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정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즉각 대안책을 마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만이 수익 효과에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같은 계륵인 상황 속 택시 요금 인상안이 어떤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vitna@

오늘의 운세 3월 13일 (음 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저축으로 불의의 근심을 방지. 48년생 아흔 아홉 삼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에게 꾸어 달라한다. 60년생 부귀는 들고 도니 자신의 실천어부로 결정. 72년생 술을 적게 마시면 실수가 적어진다. 84년생 취미가 정해질 것.



37년생 겨울을 보니 이태백의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 시가 생각. 49년생 말날이니 말조심. 61년생 투기만을 도모하면 가난은 이미 싹트고 있는 중. 73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5년생 기쁨이 넘치는 순간 근심이 다가온다.



38년생 초월자나 절대자는 사람과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는가. 50년생 오늘은 유난히 바쁜 날이다. 62년생 먼 길을 돌아서 원점으로 복귀. 74년생 영업의 실적에서 이득이 보이니 실망하지 않도록. 86년생 내 마음은 호수 같이 평온.



39년생 좋아하는 일을 맡게 된다. 51년생 까닭 없이 아들집을 찾아가서 머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63년생 정신의 세계가 중요하듯 물질도 중요. 75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라. 87년생 하루 먹는 양은 많아야 세끼인데.



40년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52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처면 언제나 용기가 된다. 64년생 평온한 바다를 떠다니는 기분. 76년생 인생전체를 놓고 보면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업이 있어야. 88년생 지난일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41년생 길이 막혔으니 새로운 길을 모색. 53년생 이성문제는 스스로 억제해야. 65년생 나무자주 만나면 친한 사이도 도리어 멀어진다. 77년생 실적을 위해 친구들과 노는 것은 포기. 89년생 퇴근하고 미장원까지 파마머리를 해본다.



42년생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게 당연하니 자제를. 54년생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66년생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78년생 뒤통수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90년생 직장에 도리를 하면서 개인일도 신경.



43년생 처세에 어두운 사람도 있기 마련. 55년생 가정사의 대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길한 날을 잡았다. 67년생 맑은 풍속을 따라야 생활이 들뜨지 않는다. 79년생 같은 유의 사고는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91년생 행동으로 보여줘라.



44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해야 한다. 56년생 상처도 시간이 가면 새살이 돋는다. 68년생 부동산문제는 시대 탓으로 질곡에 빠지면 우울증 온다. 80년생 5시이후 차량안전주의. 92년생 개운이란 신비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45년생 총동적인 과소비를 조심. 5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9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81년생 사건에 대해 이성점을 찾아야. 93년생 점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46년생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을 없구나. 58년생 인생의 수업료 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자. 70년생 머리에 저장을 해야 미래의 후원자가 될 뉘. 82년생 이순신장군은 주역에 익숙한 군인이다. 94년생 집나가서 민망한 일을 조심.



47년생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59년생 누구에게나 비취주는 태양에 감사. 71년생 내가 투자한 것인저 도박을 한 것인지 되돌아보라. 83년생 황제 운이 있으니 부모님의 재산 중여도 있다. 95년생 변명과 사과의 여지도 없이 뻔뻔하지는 말자.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⑭



오늘 경오일庚午 말날이다.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이 많지만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기로는 마소가 으뜸이다. 말을 셀 때는 ‘필’이라하고 소를 셀 때는 마리라 했다. 말은 야간에 옥강 한필에 해당하는 거리의 시력을 가졌고 소는 한 마리에 해당하는 거리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야간에 기습을 할 때는 말을 이용했고 소는 썰이나 마차위에 붙드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적진에 투입시켰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는 뒤돌아 설줄 모르니 적군에게는 곤혹스러운 대상이었다.

이렇게 유용한 두 동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 마차에 소와 말을 함께 묶어 끌게 하면 제자리만 뱅뱅 돌고 만다. 서로를 사납게 대하며 갖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한다. 그래서인지 마우馬牛를 동시에 쓰는 성어에는 예외 없이 보잘것없는 뜻이 담겨있다. 일례로 학식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이르는 말로 마우금거馬牛禁?가 있다. 도리에 어긋나는 경우를 두고 썰이 없는 송아지와 썰이 있는 말의 뜻으로 동우각마童牛角馬로 비유하기도 한다. 대개 말은 개와 짝을 이루어 충충을 나타내는데 소는 개와 짝을 이루지 못하고 광狂의 공통분모만 성립된다. 인오寅午와 오술午戌은 얼핏 같아보여도 속뜻이 크게 다르다. 앞은 사사死死의 포태胞胎 조합이고 뒤는 양왕養旺이다.

인오는 마치 마이동풍馬耳東風과 같고 오술은 견마지충犬馬之忠 또는 구마지심狗馬之心의 공功으로 나타난다. 축술丑戌은 광견광우狂犬狂牛의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 말은 원송이와도 어긋난다. 신申과 우牛는 쌍방이 욕욕浴敗에 놓이는 까닭이다. 날뛰는 말과 떠드는 원송이는 진정시키기 어려운데 번뇌와 정욕情慾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억누를 수 없는 지경을 두고 의사심원意馬心猿이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51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8		2				
			7					6
7		6	5					1
	2						3	
	3						1	
6					4	9		8
4				8				
			7		2			

9	6							
				5			2	4
				7			6	
8	4	9				2	1	6
	7							
	2			3				
6	9		7					
							8	7

정답

7	9	2	5	1	6	8	3	4
6	1	8	9	2	5	6	7	
8	5	6	7	8	1	2	3	9
5	1	9	2	6	7	1	8	3
2	7	8	1	5	6	1	9	6
6	8	1	9	1	8	7	2	5
1	2	8	6	8	9	9	7	1
9	8	5	6	7	1	6	1	2
1	6	7	1	2	9	8	5	6

1	8	7	6	9	2	1	5	6
2	8	9	1	7	1	8	6	9
1	6	9	8	6	9	1	2	7
6	9	8	2	6	7	9	1	1
9	1	2	1	5	6	6	7	8
6	7	1	9	1	8	2	6	9
5	9	1	6	1	6	7	8	2
7	2	6	9	8	9	6	1	1
8	1	6	7	2	1	9	9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말 뿐인 학폭 대응... 처벌기준 ‘흐릿’

정부 정책·제도 실효성 의구심
해외국가 피해 가이드라인 미흡
피해 예방·회복 프로그램 부족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학폭) 대응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폭 발생 시 지역사회가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학폭’ 정확한 기준 必...지역사회가
종합적으로 노력해야

캐나다는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양상을 띠는 만큼 학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011년 온타리오에서 괴롭힘으로 15세 소년이 자살한 사건 이후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폭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소한 모욕도 폭력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리하며,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법률적 체계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방지법’을 법제화해 학폭 발생 시 최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췄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에서는 학폭 감소를 위해 ‘학교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이란 학교를 관할 구역으로 교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2013)’ 논문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총체적 학교 접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폭 발생 시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부족...다변화된 학폭 대책은?

특히 한국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할 뿐더러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에 가깝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신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모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2023)’에서는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 여건이나 관계·환경·시간적 특성 등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세밀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직까지도 학폭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기초 자료 수집에 있어 실태조사나 신고 시스템상에서 관련 세부 구성요소가 세밀하게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폭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 있다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교육을 진행할 때도 활용할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유럽 출장길 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

‘매력특별시’ 성공전략 찾는다

22일까지 9박 11일 일정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 홍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사진)이 이달 12~22일 9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 강과 바다를 활용해 활력과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변영할 수 있었던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형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사람·기업·자본이 물리는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올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3월 12~15일 영국 런던에서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템즈강의 매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런던아이, 템즈강의 활용도를 높이는 신(新) 이동수단(리버버스,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을 직접 타보고 도심의 매력도를 높인 성공 요인을 분석,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런던증권거래소-서울투자청 협력 업무협약(MOU),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니콜라스 라이언스 런던금융 특구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과 서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바젤대 엑셀러레이션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는 스위스바젤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현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바이오·의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바젤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주축을 이루는 바젤대와 함께 올해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차(4월) 5개사, 2차(8월) 5개사로 나

눠 참여 기업을 선발하며, 모집 분야는 ‘디지털 헬스’, ‘바이오·의료 혁신 기술’이다.

선발된 기업은 바젤 현지에서 4주간 글로벌 제약사 및 벤처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바젤대 협력기관 연구소에서 기술 검증과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 유럽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학습지원 강화

42개 전문기관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전문적인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42개 난독·경계선지능 전문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문지원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난독·경계선지능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교육청은 난독·경계선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 관리를 지원하며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전문지원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 공유 등 학생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난독·경계선지능 관련 진단 및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학교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역학습도움센터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선택한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교육부, ‘글로벌대학위원회’ 출범... 자율적 대도약 지원

지역발전 견인할 글로벌대학 육성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글로벌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대학위원회’가 출범한다.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위원회가 13일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대학위원회

운영 규정(안)과 ‘글로벌대학30추진방안(시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이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학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하향식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개혁을 이끌기에는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대학위원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인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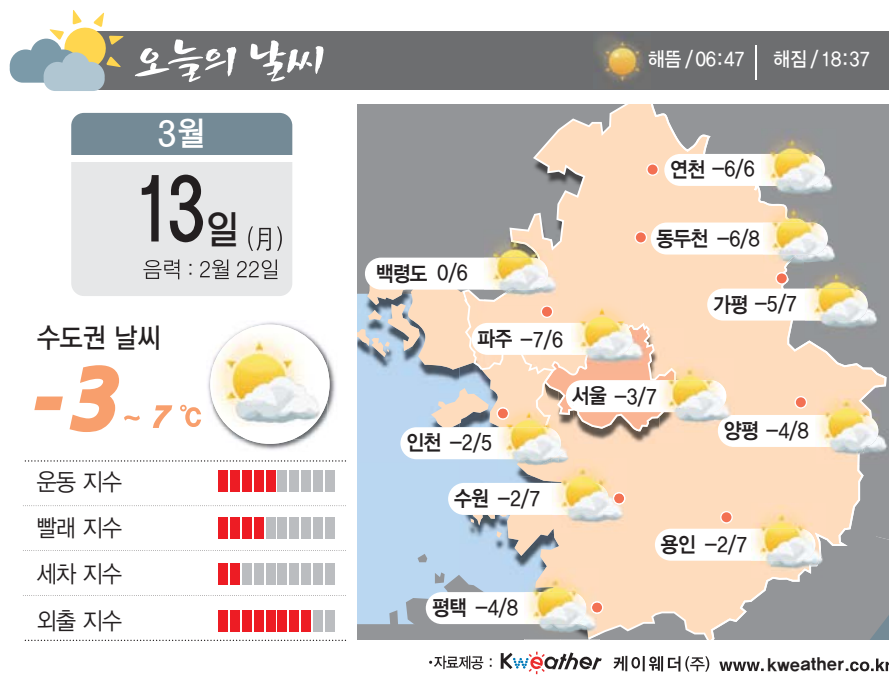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5357억 투입

개인 삶의 질 향상 등 94개 사업 추진

용인특례시는 12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차원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에 발맞춰 개

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등 94개 사업에 총 5357억 원을 투입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한다. /용인(경기)=임청교 기자 lckda@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일본,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사진 뉴시스
▲美정부, SVB 파산 대응 ...예금보호 초과분 조기지급 등 검토

▲G7, 중요물자 공급망 구축 히로시마 서밋 공동문서에 명기
▲프랑스 상원, 30만 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1차 통과



▲프란치스코 교황 “우크라이나 간다면 러도 함께 방문하겠다” /사진 뉴시스
▲獨 베를린 “여성도 수영장서 상의 탈의 가능”...‘양성평등’ 위해 결정



[라이프]
동원그룹
참치사업 넘어
바이오·프랜차이즈로
나

metro®

Life

[라이프]
없는게 없는 편의점
1인가구 장보기
'미니마트' 역할
L2



도움받던 아이, 도움주는 어른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 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김 두 형 씨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약자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 행동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다. 그때부터 다짐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다짐한다. 오늘도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김두형 사회복지사는 이 같은 다짐을 지키면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받은 도움 나누고파

김두형 사회복지사 역시 어린 시절 복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한다.

김두형 사회복지사는 “일을 하다보면 아직도 힘든 어린 시절이 문득문득 생각난다”며 “그 시절 곁에서 따뜻한 마음과 큰 관심을 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어릴 때부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란 생각을 하며 자라왔다”고 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사회복지 전반의 분위기와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친구들은 학교를 마친 후 집에 오면 쉬었다가 학원을 갔지만, 저는 하교 후 지역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해 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며 “어느 순간 어르신들은 친손자 처럼 반겨주었고 말동무가 되면서 서로의 감정에 공감한 것이 오늘날 일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주변 이웃들과 어르신들의 마을회관처럼 방문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일찍 깨달았다.

그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데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친구들을 보고 사소한 일상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며 “하루라도 안보이는 날이면 무슨 일 벌어진 것 아니냐며 복지사들 보다 먼저 집에 방문하고, 연락을 한다”고 했다.

복지관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가족이 형성돼 애정이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복지사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후에도 복지관은 다르지만 분위기는 학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보람되고 알찬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사회복지사라는 일에 대한 애착함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의 맘과 인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는 때보다 중요해졌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당시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사회 복지시설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노인·청소년 활동 보조 ▲복지관 배식활동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줬던 일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했다.

또한 방역까지 업무에 추가돼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졌다.



김두형 사회복지사가 지난해 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두형 사회복지사가 영양사팀과 복지관 프로그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시절, 복지 도움 받으며 자라 도움되는 사람 되고자 사회복지사로

어릴적부터 지역 복지관 찾아 봉사활동 서로 감정 교류하며 하나의 가족 형성

코로나로 사회복지사 역할 중요해져 인력부족해 업무량▲, 처우개선해야 온전한 복지 위한 따뜻한 관심 필요해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면 검사를 수 없이 감염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될 경우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당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더욱 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돕기 때문에 온전한 복지를 실행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고 했다.

실제 퇴사한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명 중 3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일주일 평균 55~60시간 근무하고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근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다.

김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고 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확대된다면 업무증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이 온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다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 복지가 과거보다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천가,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가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회복지사는 “중요부품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맘이 업무 성취감과 비례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많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WBC, ‘체코전 3실점’ 한국, 8강 진출 더 꼬였다 /사진 뉴시스
▲조재호, 한국인 최초 PBA 월드챔피언 등극

▲이집트 아스완 여성영화제에서 정지혜 감독의 ‘정순’ 최고상
▲“생활고 시달린다”던 배우 김새론... 카페알바 셀프인증 ‘차츰수’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2, 공개작 후 세계 3위
▲손흥민, EPL 통산 99호골 터뜨려... 토트넘 승리 /사진 뉴시스